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도서

창가의 또또



구리야나기 데프꼬 글
설희 증역

연변인민출판사

창가의 또또

구로야나기 데즈코 글

설희 중역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림복희

책임교정: 김해연

기술설계: 장학봉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窗边的豆豆: 朝鲜文 / (日)黑柳彻子著; 赵玉皎, 雪姬译.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3
ISBN 978-7-5449-0542-8

I. 窗… II. ①黑… ②赵… ③雪… III. 儿童文学—长篇小说—日本—现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音)
IV. I313.84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038946号

窗边的小豆豆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7.875 字数: 18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542-8 (民文)

版次: 2009年3月第1版 2009年3月第1次印刷

印数: 1,000册 定价: 15.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차 례

처음 가보는 전철역 /1	
창가의 뽕뽕 /4	
새 학교 /12	
마을에 들어 /14	
교장선생님 /17	
도시락 /22	
오늘부터 학교에 간다 /24	
전철교실 /28	
첫 수업 /31	
산의 맛, 바다의 맛 /35	
꼭꼭 씹어요 /39	
삼채 /41	
교가 /45	
원래대로 해놓거라 /49	
내 이름은 뽕뽕 /54	
말땀 /56	
전철이 온다 /58	
알뜰으로 수영해요 /63	
성적표 /67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69	





장가의 또

대모권 /72
 귀신은 안 무서워 /78
 아빠의 연습식 /82
 온천여행 /86
 리더마크 /92
 평생의 소원 /98
 가장 허름한 옷을 입히세요 /102
 새로 온 친구 /107
 뛰어들면 안돼 /110
 그리고 말이지 /113
 장난을 쳤을뿐이야 /118
 운동회 /122
 고바야시 잇사 /130



정말 이상해요 /132
 손으로 말해요 /137
 마사오짱! /139
 처음으로 땅았어요 /142
 땀큐 /146
 도서관이 생겼어요 /149
 꼬리 /152
 두번째 봄 /156
 백조공주를 꿈꾸며 /158
 농부선생님 /161
 방짓기 /165
 사십은 착한 아이란다 /170
 색시가 될수 없어 /173

누데기학교 /175
리봉 /179
워문 /183
건강나무껍질 /187
영어를 하는 아이 /194
착예희 /198
악서 /202
아스아끼가 죽었다 /205
스파이 /209
아빠의 바이올린 /213
약속 /216
로키가 사라졌다 /220
다라희 /225
안녕! 안녕! /230
작가후기 /232



처음 가보는 전철역

오이마찌선 전철을 타고 가다가 지유노오까역에 내리자
엄마는 또또의 손을 잡고 개찰구를 빠져나오려 했다. 그때까
지 또또는 전철을 타본적이 없었기때문에 소중하게 쥐고있던
표를 쥐버리기가 어쩐지 아까웠다. 그래서 개찰구에 서있는
아저씨에게 물었다.

“이 전철표를 가지면 안돼요?”

아저씨는 “안되지.” 하고는 또또의 손에서 전철표를 빼앗
았다. 또또는 개찰구에 놓여진 상자 가득 담겨있는 전철표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것 전부 아저씨거예요?”

아저씨는 밖으로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표를 낚아채면서
무심히 대답했다.

“아저씨거 아니구 역의것이지.”

또또는 무척이나 아쉬운듯 상자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저요, 이담에 커서 전철표 파는 사람 될거예요.”

아저씨는 그때에야 또또를 흘끗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아들녀석도 역에서 일하고싶어하니까 같이하면 되



겠구나.”

또또는 멀리 떨어져서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뚱뚱한데다 안경을 끼고있었다. 찬찬히 보니 마음씨가 좋아보이기도 했다.

“흠…”

또또는 허리에 손을 대고 이리저리 관찰하며 말했다.

“아저씨 아들하고 같이해도 괜찮지만 한번 생각해볼게요. 전 지금 새 학교에 가는 길이라 좀 바쁘거든요.”

또또는 그렇게 말하고 기다리는 엄마에게로 뛰어갔다. 그리고 이렇게 웨쳤다.

“엄마! 나, 전철표 파는 사람이 될거야!”

엄마는 조금도 놀랍지 않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스파이가 되겠다는건 어떡하고?”

또또는 엄마의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다. (맞아. 어제까지는 꼭 스파이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었는데… 하지만 상자 가득 전철표를 담아두는 사람이 되는것도 참 좋을것 같애.)

(그래!) 또또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 엄마를 쳐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원래는 스파이인데 전철표도 판다고 하면 어떨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엄마는 지금 너무도 불안했던것이다. (혹시라도 지금 가는 학교에서조차 이애를 받아주지 않으면…) 작은 꽃이 달린 중절모를 쓴 엄마의 예쁜 얼굴이 약간 심각해졌다. 그리고 깡충거리면서 뭐라고 설새없이 종알대는 또또를 바라보았다. 또또는 엄마가 걱정하고 있는것도 모르고 눈이 마주치자 신이 난다는듯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생각해봤는데 랑쪽 다 그만두고 그냥 친동아
(이상한 복장을 하고 악기를 울리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며 선
전이나 광고를 하는 사람) 되래!”

엄마는 다소 절망적인 심정으로 말했다.

“애, 늦겠다. 교장선생님이 기다리시니까 이제 그만 종알
대고 앞 좀 보고 걸어.”

두 사람의 시야에 조그만 학교문이 들어왔다.





장가의 또또

새로운 학교의 문을 들어서기전에 또또의 엄마가 왜 불안해하는가를 설명하자. 또또는 겨우 1학년생이지만 이미 퇴학을 당한적이 있기때문이다. 겨우 1학년에!

바로 지난주의 일이였다. 엄마는 또또의 담임선생님에게 불려가 이런 말을 들었다.

“따님은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다른 학교로 데려가주셨으면 해요.”

젊고 아름다운 녀선생은 한숨을 내쉬면서 같은 말만을 되풀이했다.

“정말 어째야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엄마는 깜짝 놀랐다.

(대체 어떤 행동을... 저 애가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다니, 대체 무슨짓을 했길래...)

선생님은 구부려 올린 속눈썹을 깜빡거렸다. 파마를 하여 안쪽으로 손질한 짧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선 수업중에 책상뚜껑을 백번도 더 열었다닫았다합니

다. 그래서 제가 공연히 책상뚜껑을 열었다닫았다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부터 따님은 필기장부터 시작해서 필통, 교과서를 다 책상속에 넣어버린 다음 하나하나 꺼내요. 레를 들어서 말이죠. 받아쓰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따님은 먼저 뚜껑을 열고 필기장을 꺼낸다싶기가 무섭게 쾡하고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또 열어 머리를 안으로 들이밀고 ‘가’를 쓰기 위해 필통에서 연필을 꺼낸 다음 또 얼른 닫고 ‘가’를 씁니다. 그런데 글씨가 마음에 안 들거나 잘못 썼거나 하면 뚜껑을 열고 또 머리를 들이밀고 지우개를 꺼내고 닫은 다음 얼른 지우개를 쓰고나서는 또 무서운 속도로 뚜껑을 열어 지우개를 넣고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금방 다시 열기에 지켜보았더니 고작 ‘가’ 한 글자만 달랑 쓰고는 학용품을 하나하나 다 넣어버리는거예요. 연필을 넣고 닫은 다음 다시 열어 필기장을 넣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는 ‘나’를 쓸 때가 되면 다시 필기장부터 시작해서 연필, 지우개… 그때마다 제 눈앞에서 눈이 핑핑 돌 정도로 책상뚜껑이 열렸다닫혔다해요. 정말이지 전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에요. 그렇다고 일단은 책상뚜껑을 열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고도 할수 없고…”

그때를 떠올리는듯 선생님의 속눈썹이 빠르게 깜빡였다.

거기까지 들은 엄마는 또또가 왜 책상뚜껑을 그렇게 열었다닫았다하는지 조금은 알수 있을것 같았다. 처음 학교에 갔다온 날 또또가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것이다.

“엄마, 학교는 정말 대단해! 우리 집 책상서랍은 이렇게 잡아당기는건데 학교의 책상은 뚜껑을 위로 올리게 되어있





창가의 또또

어. 쓰레기통뚜껑과 똑같은데 더 매끈매끈해. 그리고 아주 많이 넣을수 있어서 참 좋아!”

지금껏 본적 없는 책상앞에서 마냥 신기해하며 뚜껑을 열었다닫았다하는 또또의 모습이 엄마의 눈에 섰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고 또 차츰 익숙해지면 그렇게 심하게 열었다닫았다하지도 않을텐데…)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선생님께는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 정도만 돼도 괜찮겠어요.”

엄마는 몸이 움츠러드는 기분이었다. 선생님은 몸을 조금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어제 책상소리를 내지 않는다싶어서 돌아보면 이번에는 수업중에 서있는거예요. 계속해서!”

엄마는 또 깜짝 놀라서 물었다.

“서있다니, 어디에 말입니까?”

선생님은 약간 화가 난듯이 말했다.

“교실 창가예요!”

엄마는 리유를 알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질문했다.

“창가에서 대체 뭘 하는거죠?”

선생님은 거의 웨치듯이 말했다.

“친동야와 인사하기 위해서죠!”

선생님의 얘기를 정리해보니 대충 이랬다.

1교시 내내 웬만큼 책상을 툭툭거리고나면 또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 밖을 내다본다. 그리고 선생님이 “조용히만 있어준다면 서있어도 상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큰소리로 “친동야아저씨!” 하고 밖을 향해 웨친다.

공교롭게도 똘똘에게는 행복하고 그러나 선생님에게는 불행하게 교실창문이 1층에 있었고 계다가 길이 바로 코앞이었다. 그리고 경계라고 해봤자 낮은 녹색관목을타리만 있을 뿐이어서 똘똘은 쉽게 지나가는 사람들과 얘기할수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지나가던 친동야는 창문밑까지 다가온다. 그러면 똘똘은 기쁘다는듯이 반 아이들을 부른다.

“왔어!”

그 소리에 공부를 하고있던 반 아이들은 일제히 창가로 몰려가 입을 모아 웨친다.

“친동야아저씨!”

그러면 똘똘은 친동야를 조른다.

“아저씨, 조금만 연주를 해보세요.”

학교였을 지날 때는 일부러 소리를 낮추는 친동야도 모처럼의 부탁이라 성대하게 연주를 시작한다. 클라리네트며 썩과리, 북 등을 총동원해서...

선생님은 한곡이 끝날 때까지 혼자 교단에 서서 조용히 기다리는수 밖에 없다. “이 한곡이 끝날 때까지만 참자.”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그리하여 한곡이 끝나면 친동야는 다시 가던 길을 가고 학생들은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똘똘은 창가에서 꼼짝을 않는다. 선생님이 다시 의아해하며 묻는다.

“왜 그냥 거기 있는거니?”

그러면 똘똘은 아주 진지하게 대답한다.



“다른 친동아아저씨가 그냥 지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아까 그 친동아아저씨가 다시 올지도 모르구요.”

“그래서야 어떻게 수업이 되겠어요! 상황을 대충 짐작하시겠죠?”

얘기를 하는 동안 어느새 선생님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변해있었다.

(사실이 그렇다면 선생님도 무척이나 난처하시겠군...) 엄마는 생각했다.

그때 선생님은 한층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게다가!”

엄마는 놀라면서도 약간 비참한 심정으로 선생님께 물었다.

“아직 뭐가 또 있어요?”

선생님이 즉시 대답했다.

“아직이라고 말할수 있을 정도나 되면 제가 이렇게 학교를 그만뒀달라고 부탁드리지도 않죠!”

선생님은 잠시 숨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라앉힌후 다시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역시 토토가 창가에 서있길래 저 또한 ‘친동야를 기다리나보다’ 생각하며 수업을 하고있는데 갑자기 큰소리로 ‘뭐 하니?’ 하고 누군가에게 묻는거예요. 제 쪽에서는 상대방이 보이지 않으니깐 ‘이번엔 누굴까?’ 하고 궁금해하고있는데 또 큰소리로 ‘애, 뭐 하니?’ 하는거예요. 그것도 길이 아니라 웃쪽을 보고 말이에요. 전 하도 신경이 쓰여서 도대체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나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였지만 영 대답이 없는거예요. 따님이 계속해서 ‘응, 뭐하고있는거냐니까?’ 하고 묻길래 수업에 지장도 있고 해서

창가로 가 따님이 얘기를 나누고있는 상대가 누군지 봤죠...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우를 봤더니 글썄 교실 지붕 밑에다 제비가 집을 짓고있었어요. 따님은 그 제비한테 얘기했던것이죠.

물론 저도 아이의 마음을 모르는것은 아니니까 제비한테 그렇게 물었다고 해서 잘못됐다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수업시간인데 그렇게 큰소리로 제비에게 ‘뭘 하고있냐.’고 떠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엄마가 (대체 뭐라고 사죄를 해야 하지?) 하고 생각하며 채 말을 꺼내기도전에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첫 미술시간이었는데 제가 국기를 그려보라고 했더니 다른 아이들은 도화지에다 제대로 국기를 그리고있는데 따님만은 《아사히신문》크기만한 군함기를 그리기 시작하더군요. 그것도 꽤찮은 아이디어다싶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기발가장자리에다 술을 그리기 시작하는거예요. 글썄 술! 보통 청년단기발 같은데에 달려있는 그런 술 말이에요! 어쨌거나 그것도 ‘뭐 어디선가 봐서 그러는거겠지.’ 하고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잠시후 글썄 책상에다도 온통 노란색술을 칠하고있는것이였어요. 도화지에 거의 차도록 기발을 그렸기때문에 애당초 술을 그릴 여백이 얼마 없었는데도 노란 크레용으로 술을 복복 그리는거였어요. 도화지를 치우고 보니 책상에 온통 크레용자국이 남아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나마 세 방향뿐이었기에 다행이었지요.”

엄마는 기가 죽으면서도 재빨리 질문을 했다.

“세 방향이라면?”



선생님은 슬슬 피곤해지는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대답했다.

“기대를 왼쪽편에 그렸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는 그럴수 없잖아요.”

엄마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말했다.

“아아, 그래서 세 방향만...”

그러자 선생님은 아주 느릿한 말투로 이번에는 한마디씩 끊어 다시 말을 시작했다.

“다만 그 대신에 기대끝이 책상까지 나와 크레용자국이 남아있었죠.”

그 말을 끝내자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주 랭정한 말투로 마무리를 짓듯 말했다.

“그리고 저뿐만아니고 옆반의 담임선생님도 곤란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엄마는 부득불 결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대로 놔뒀다 가는 다른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게 될거야. 어디 다른 학교를 알아봐서 전학을 시켜야겠네. 어떻게든 저 아이의 성격을 이해해주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행동하는걸 가르쳐줄만한 학교로...)

그리하여 엄마가 여기저기 뛰어다녀 찾아낸 곳이 지금 막 교문을 들어서려는 학교인것이다.

엄마는 이렇게 퇴학당한 사실을 또또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얘기를 해봐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게 뻔하고 또 그런 일로 또또가 콤플렉스를 갖게 되면 안되겠다싶은 생각에 언젠가 크면 얘기해주자고 결심했던것이다. 그래서 또또에게는 이렇게만 말했다.



“다른 학교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 좋은 학교라는데.”

또또는 잠시 생각한 다음 말했다.

“가지, 뭐...”

엄마는 (이 애가 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걸가?)
하고 생각했다. (어렴풋이 퇴학당했다는걸 알고있는걸가...)

다음 순간 또또는 엄마 품으로 뛰어들며 말했다.

“엄마, 이번에 가는 학교에도 맘씨 좋은 친동야아저씨가
오겠지?”

어쨌든 지금 또또와 엄마는 새 학교를 향해 걷고있는것이다.